

# 고학력자의 임금효과에 관한 분석

박성재·이규용\*

## I. 문제 제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12.2%까지 치솟았던 청년층 실업률이 이후 빠른 경제회복에 힘입어 2002년 6.6%까지 하락하여 1997년의 5.7%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경기불황으로 다시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해 2005년 10월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7.2%에 이르고 있다. 전체 실업률(3.6%)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OECD, 2004), 실질적으로 실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는 유희화율로 보면 청년실업 정도는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청년층은 직업탐색 과정에서 잦은 노동이동을 경험하고, 비정규 고용형태가 많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일자리 경험을 갖지 못하고 유희화<sup>1)</sup>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직업생애 진입기에 경험하는 노동력 유희화는 기존의 인적자본을 감가상각할 뿐만 아니라 근로경험을 통한 인적자본축적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착도를 저하시켜 노동력의 유희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기 때문이다(이병희, 2003).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청년 실업문제를 노동정책의 주요 핵심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선진국 역시 장기간의 미취업기간을 줄이거나 미취업경험 없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유도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OECD, 1998, 1999).

\* 박성재=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 책임연구원(parksj@kli.re.kr).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 전문위원(leeky@kli.re.kr).

1) 청년층 고용문제를 논함에 있어 실업개념보다는 미취업상태를 뜻하는 유희화 개념이 문제의 본질에 보다 적합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한 기초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의 국내 연구동향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와 이러한 성과를 결정하는 청년층 시기의 행태, 즉 교육선택이나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의 관련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는 첫 일자리의 취업여부, 미취업기간의 탈출확률 등 수량적인 평가지표와 고용형태, 임금수준, 만족도 등 질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안주엽·홍서연(2002), 이병희(2002, 2003), 김우영(2002)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분석시기를 첫 일자리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로 확대하여 청년층이 재학 중 갖는 근로경험, 청년기의 교육선택, 직업세계의 정착과정이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장수명, 2002; 최영섭, 2002; 이병희, 2003; 김주섭, 2003 등).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대졸 청년층의 교육투자 수익률 추정을 통한 과잉투자 또는 하향취업 문제를 다루거나, 대학전공의 선택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출신대학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라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이규용·김용현, 2003; 이병희 외, 2005). 이러한 관심의 이면에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공급구조의 질적 개선이라는 과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재학 중의 노력과 성취는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학 재학 중에 획득한 전공별 숙련형성이나 다양한 능력향상 노력은 주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인적자본의 정도가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또 한 차원으로 출신대학이 노동시장에서 선별기제로 작동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서 출신대학의 차이가 인적자본 축적량의 차이로 이해되고 이것이 이른바 ‘학벌’이라는 사회적 선별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고학력자들의 수능성적, 선택한 전공 및 출신대학 그리고 대학재학 중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첫 일자리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 1. 분석자료

이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학력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이하 고

학력자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이다. 고학력자 조사는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직업이동경로를 조사함으로써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조사이다.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이 2005년 10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5년 2월 국내의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402명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시점에서의 경제활동상태(현 직장 및 첫 직장), 직업이동경로, 일자리 탐색과정 등을 추적조사한 것이다.

<표 1>은 예비조사 표본의 학력수준별 인적특성이다. 대졸자가 대부분이고 서울지역 출신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2월 졸업한 우리나라 전체 고학력자의 인적특성과 유리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sup>2)</sup> 이러한 차이점은 예비조사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예비조사란 본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설문지 내용의 실용성, 조사의 문제점,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문조사 이전에 실시하는 조사이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수정할 수 있으며, 본 조사결과의 통계적 분석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

2) 한국교육개발원(2005. 10)의 『200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371개 고등교육기관에서 2004년 8월과 2005년 2월에 졸업한 고학력자는 530,41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문대와 일반 4년제 대학의 졸업자의 성, 전공,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200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분포(2004. 8~2005. 2)>

		전문대		일반대		전 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성	남 성	106,061	46.4	136,593	50.8	242,654	48.8
	여 성	122,275	53.6	132,240	49.2	254,515	51.2
전공	인 문	12,159	5.3	39,258	14.6	51,417	10.3
	사 회	54,576	23.9	69,926	26.0	124,502	25.0
	교 육	10,226	4.5	14,632	5.4	24,858	5.0
	공 학	74,349	32.6	69,419	25.8	143,768	28.9
	자 연	17,177	7.5	36,441	13.6	53,618	10.8
	의 약	21,515	9.4	12,466	4.6	33,981	6.8
	예체능	38,334	16.8	26,691	9.9	65,025	13.1
지역	서 울	18,807	8.2	69,903	26.0	88,710	17.8
	수도권	72,296	31.7	37,499	13.9	109,795	22.1
	영 남	69,397	30.4	70,334	26.2	139,731	28.1
	호 남	30,984	13.6	32,395	12.1	63,379	12.7
	충 청	26,331	11.5	44,717	16.6	71,048	14.3
	기 타	10,521	4.6	13,985	5.2	24,506	4.9
전 체		228,336	100.0	268,833	100.0	497,169	100.0

주: 1) 전국 371개 고등교육기관의 2004년 8월과 2005년 2월 졸업자임.

2) 일반대는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자료집』, 2005.

〈표 1〉 예비조사 표본의 특성

(단위: 명, %)

		전문대졸	대학졸	전 체
성	남성	1 ( 25.0)	167 ( 42.0)	168 ( 41.8)
	여성	3 ( 75.0)	231 ( 58.0)	234 ( 58.2)
전공	인문·사회	0 ( 0.0)	163 ( 41.0)	163 ( 40.5)
	법·상경	0 ( 0.0)	57 ( 14.3)	57 ( 14.2)
	이공·자연	1 ( 25.0)	131 ( 32.9)	132 ( 32.8)
	기타	3 ( 75.0)	47 ( 11.8)	50 ( 12.4)
최종학교 출신지역	서울	4 (100.0)	197 ( 49.5)	201 ( 50.0)
	수도권	0 ( 0.0)	75 ( 18.8)	75 ( 18.7)
	지방	0 ( 0.0)	126 ( 31.7)	126 ( 31.3)
	영남	0 ( 0.0)	52 ( 13.1)	52 ( 12.9)
	호남	0 ( 0.0)	3 ( 0.8)	3 ( 0.7)
	충청	0 ( 0.0)	17 ( 4.3)	17 ( 4.2)
	기타	0 ( 0.0)	54 ( 13.6)	54 ( 13.4)
	전 체	4 (100.0)	398 (100.0)	402 (100.0)

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정하게 됨으로써 분석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예비조사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고학력자들의 노동시장 진입행태와 직업이동경로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하의 분석결과는 표본의 특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예비조사 자료가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이행 초기 행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본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현재까지의 일자리 경험여부를 확인해 보면 조사시점까지 일자리를 1회 이상 경험한 자는 283명(70.4%)이며, 조사시점 현재 취업자는 242명(60.2%)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2005년 2월에 졸업한 관계로 대부분 현재 취업한 일자리(225명) 혹은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38명)가 첫 일자리인 경우가 많았고(92.9%) 2회 이상 일자리를 경험한자는 20명(7.1%)에 불과하였다.

표본선정과정을 거쳐 이 연구에 사용한 표본은 총 278명이다. 이 연구의 목적이 고학력자의 인적특성 및 출신대학이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현재 취업한 일자리가 첫 일자리인 자와 첫 일자리를 경험한 자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다. 또한 최종학력이 전문대 졸업자인 자(4명)와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자(1명) 역시 분석의 편의를 위해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통계는 <표 2>와 같다. 전체 278명의 표본 중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졸업자가 179명(64.3%)이며 지방대학 졸업생은 99명(35.7%)이다. 지방출신자 중에는 영남(14.3%)과 기타 지역(15.8) 출신의 비중이 높다. 성별로 보면 남성(37.4%)에 비해 여성(62.6%)의 비율이 다소 높고,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39.2%), 이공·자

〈표 2〉 분석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성		전 공				전 체
	남성	여성	인문·사회	법·상경	이공·자연	기타	
서울	54(45.0)	66(55.0)	53(44.2)	15(12.5)	35(29.2)	17(14.2)	120[43.1]
수도권	30(50.8)	29(49.2)	16(27.1)	11(18.6)	27(45.8)	5(8.5)	59[21.2]
지방	20(20.2)	79(79.8)	40(40.4)	5(5.1)	38(38.4)	16(16.2)	99[35.7]
영남	10(25.0)	30(75.0)	13(32.5)	0(0.0)	21(52.5)	6(15.0)	40[14.3]
호남	0(0.0)	2(100.0)	0(0.0)	0(0.0)	1(50.0)	1(50.0)	2[0.7]
충청	5(38.5)	8(61.5)	4(30.8)	1(7.7)	3(23.1)	5(38.5)	13[4.6]
기타	5(11.4)	39(88.6)	23(52.3)	4(9.1)	13(29.5)	4(9.1)	44[15.8]
전체	104(37.4)	174(62.6)	109(39.2)	31(11.2)	100(36.0)	38(13.7)	278[100.0]

주: 1) 기타는 강원도와 제주도임.

2) ( )안은 지역내 인적특성별 비중이고, [ ]안은 지역간 비중임.

연계열(36.0%) 순이다.

## 2. 분석자료의 기초통계

### 가. 노동시장 이행기간

표본의 학교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린 기간(이행기간)을 보면 평균 2.38개월로 나타났다.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첫 일자리를 찾은 비율이 74.4%에 달해 비교적 이행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연구에서는 청년층의 평균 이행기간이 12개월 내외로 보고되고 있는데(이병희, 2003; 류장수, 2005),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것은 표본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이며 서울지역 출신비중이 높다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본의 인적특성별로 이행기간을 비교해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전공계열로는 이공·자연계열과 기타(의료보건 및 예체능)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최종학교 출신지역별로는 영남(2.05개월)과 서울 및 수도권 출신이 다소 짧았다. 한편, 최종학교의 입학당시 수능점수<sup>3)</sup>를 기준으로 보면 상위 20%에 속하는 자는 이행기간이 2.0개월에 불과하지만 중위 30%와 하위 50%는 각각 2.63개월, 2.25개월로 나타나 수능점수 중하위

3) 수능점수는 ‘학벌’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입시학원에서 제공하는 학교별·학과별 입학 예상점수와 표본을 연결해 만들었다. 물론 학과의 입학 예상점수와 개인의 수능점수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수능점수를 확인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에서는 출신학교와 출신과가 대표적인 선별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입학 예상점수를 활용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룹은 노동시장 이행기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수능점수가 높은 상위그룹은 그 기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표본의 교육특성별 이행기간

(단위 : 월, 명, %)

	평균이행 기간	이행기간(범주)								전체	
		졸업 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성	남성	2.41	37	35.2	39	37.1	19	18.1	10	9.5	105
	여성	2.37	58	32.6	78	43.8	21	11.8	21	11.8	178
전공	인문·사회	2.65	37	33.6	41	37.3	16	14.5	16	14.5	110
	법·상경	2.65	10	32.3	12	38.7	5	16.1	4	12.9	31
	이공·자연	2.12	40	39.6	38	37.6	12	11.9	11	10.9	101
	기타	2.12	8	19.5	26	63.4	7	17.1	0	0.0	41
최종 학교 지역	서울	2.32	45	36.0	49	39.2	17	13.6	14	11.2	125
	수도권	2.54	20	33.9	21	35.6	13	22.0	5	8.5	59
	영남	2.05	14	35.0	19	47.5	3	7.5	4	10.0	40
	호남	1.50	1	50.0	1	50.0	0	0.0	0	0.0	2
	충청	2.77	2	15.4	7	53.8	3	23.1	1	7.7	13
기타	2.59	13	29.5	20	45.5	4	9.1	7	15.9	44	
수능 점수	하위 50%	2.25	19	31.7	28	46.7	6	10.0	7	11.7	60
	중위 30%	2.63	48	32.0	57	38.0	26	17.3	19	12.7	150
	상위 20%	2.00	28	38.4	32	43.8	8	11.0	5	6.8	73
전 체	2.39	95	33.6	117	41.3	40	14.1	31	11.0	283	

나.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와 사업장 규모

첫 일자리의 사업장 규모, 종사상 지위 및 임금수준 등을 이용하여 대졸자들이 정규 교육을 마치고 처음으로 갖는 일자리의 수준이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시장 양극화 영향으로 취업한 일자리가 정규직인지 아니면 임시·일용직인지,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인적특성에 따라 일자리의 질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65.1%)의 비중이 높지만, 임시·일용직도 34.9%에 이르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54.6%)에 비해 남성(82.7%)의 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고,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나 기타 계열에 비해 법·상경제열(80.6%), 이공·자연계열(71.0%) 출신자의 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출신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출신자, 수능점수는 예상과 달리 중위 30%가 7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위 20%(60.3%) 순이다.

취업사업장 규모를 보면 첫 일자리가 300인 이상 사업체인 자는 21.5%에 불과하다. 80% 가까운 대졸자들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했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

비율도 45.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일수록 사업장 규모가 크고,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의 취업사업장 규모가 가장 작은 편이다. 반면, 이공·자연계열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비율이 29.7%로 다른 계열에 비해 비교적 고용의 질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일수록, 수능점수가 높을수록 30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역시 첫 일자리의 질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지만, 인적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표본의 인적특성별 종사상 지위 및 사업장 규모

(단위: 명, %)

		종사상 지위					사업장 규모						
		정규직		임시·일용직		전체	30인 미만		30-299인		300인 이상		전체
성	남성	86	82.7	18	17.3	104	35	35.4	38	38.4	26	26.3	99
	여성	95	54.6	79	45.4	174	83	51.2	49	30.2	30	18.5	162
전공	인문·사회	62	56.9	47	43.1	109	57	54.3	33	31.4	15	14.3	105
	법·상경	25	80.6	6	19.4	31	10	34.5	13	44.8	6	20.7	29
	이공·자연	71	71.0	29	29.0	100	33	36.3	31	34.1	27	29.7	91
	기타	23	60.5	15	39.5	38	18	50.0	10	27.8	8	22.2	36
최종 학교 지역	서울	80	66.7	40	33.3	120	51	44.7	33	28.9	30	26.3	114
	수도권	45	76.3	14	23.7	59	21	38.9	23	42.6	10	18.5	54
	지방	56	56.6	43	43.4	99	46	49.5	31	33.3	16	17.2	93
	영남	24	60.0	16	40.0	40	19	51.4	11	29.7	7	18.9	37
	호남	0	0.0	2	100.0	2	1	100.0	0	0.0	0	0.0	1
	충청	11	84.6	2	15.4	13	5	41.7	5	41.7	2	16.7	12
	기타	21	47.7	23	52.3	44	21	48.8	15	34.9	7	16.3	43
수능 점수	하위 50%	28	50.9	27	49.1	55	28	54.9	16	31.4	7	13.7	51
	중위 30%	109	72.7	41	27.3	150	64	44.1	49	33.8	32	22.1	145
	상위 20%	44	60.3	29	39.7	73	26	40.0	22	33.8	17	26.2	65
전 체		181	65.1	97	34.9	278	118	45.2	87	33.3	56	21.5	261

임금수준은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임금수준 비교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표본의 월평균 임금은 142.1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적특성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성별 임금격차가 큰 편으로 여성(123.7만원)에 비해 남성(174.0만원)이 40%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전공계열별로는 법·상경제열이 190.5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공·자연계열(152.0만원), 기타 계열(136.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능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수능점수 상위 20%의 월평균 임금이 162.9만원으로 나타나 중위 30%와 하위 50%에 비해 각각 28.8%, 16.9% 높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정규직은 169.0만원에 이르지 않지만, 임시·일용직은 92.7만원으로 정규직의 54.8%에

불과한 수준이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영향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큼을 재 확인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사업장의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자는 월평균 임금이 184.1만원에 이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121.3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도 매우 큰 편이다.

〈표 5〉 표본의 인적특성별 첫 일자리 임금수준

(단위: 만원, 명)

		평 균	빈 도	표준편차
성	남성	174.0	103	72.1
	여성	123.7	168	50.7
전공	인문·사회	122.2	105	52.2
	법·상경	190.5	31	70.9
	이공·자연	152.0	98	67.6
	기타	136.9	37	57.3
수능점수	하위 50%	126.5	55	49.3
	중위 30%	139.4	146	56.5
	상위 20%	162.9	70	83.6
종사상 지위	정규직	169.0	178	58.2
	임시·일용직	92.7	93	42.5
사업장 규모	30인 미만	121.3	115	55.9
	30-299인	142.7	85	55.8
	300인 이상	184.1	56	59.0
전 체		142.1	256	61.3

### Ⅲ. 첫 일자리 임금수준 결정요인

#### 1. 모형 및 변수에 대한 설명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모형은 전형적인 임금함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의 경우 첫 일자리의 월평균 로그임금을 사용하였는데, 시간당 임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개인조사라는 특성 때문에 설문특성상 시간당 임금보다는 월평균 임금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근로시간 변수는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 이전에 획득한 인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수

능점수가 첫 일자리의 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졸업자의 수능점수를 설명 변수에 포함하였다. 또한 수능점수의 차이에 따른 첫 일자리의 임금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수능점수를 100분위로 환산한 후 하위권 50%, 중위권 30%, 상위권 20%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출신대학 더미는 지방대와 수도권 및 서울지역 소재 출신대학간 임금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전공분야별 임금격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학과를 종합하여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분류해야 하는데 표본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전공은 크게 법·상경계열, 이공·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 및 기타 예체능계열로 구분하였다.

전공 이외에 재학 중 숙련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직업훈련여부, 취득한 자격증의 개수, 해외연수 경험여부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한편, 부모의 학력변수를 포함시켰는데 이 변수는 무학을 1점으로 하여 각급 학력을 점수화한 후 부모의 점수를 합산하여 변수로 만들었다. 끝으로 졸업 후 첫 일자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는데, 졸업 전에 첫 직장을 구한 경우에는 그 값을 0으로 하였다. 이 변수의 경우 첫 일자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이 낮아질 것이 기대된다.

## 2. 추정결과

<표 6>은 첫 일자리의 임금소득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 1에서는 수능점수를 연속변수로 설정한 것이고, 모형 2는 수능점수의 분포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수능점수의 분포에 따른 임금격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3은 출신대학간 임금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출신대학 소재지를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구분하여 설명변수에 포함한 것이고, 모형 4는 모형 3에 수능점수 변수를 추가하여 같은 지역권이라 하더라도 수능점수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각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연령이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별 임금격차를 보면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 각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법·상경계열 졸업자의 임금프리미엄은 26~29%로 가장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그 다음으로 이공계열 졸업자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형 1과 모형 4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과별 입학 평균점수를 나타내는 수능점수가 설명변수에 포함된 모형 1과 모형 4에서 이 변수는 통계적으로 1%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의 결과는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고 이러한 대학의 서열화가 노동시장에 반영됨

〈표 6〉 첫 일자리 임금소득 결정요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성별더미(남성=1)	-0.113 (0.078)	-0.111 (0.081)	-0.111 (0.081)	-0.114 (0.079)
연령	0.051 (0.023) **	0.057 (0.023) **	0.054 (0.024) **	0.054 (0.023) **
부모 학력	0.009 (0.011)	0.012 (0.011)	0.012 (0.012)	0.011 (0.011)
수능(중위 30%)		0.084 (0.070)		
수능(상위 20%)		0.200 (0.076) ***		
출신대학(서울)			0.074 (0.062)	-0.070 (0.068)
출신대학(수도권)			0.034 (0.072)	-0.007 (0.070)
수학능력점수	0.003 (0.001) ***			0.004 (0.001) ***
전공(법·상경제열)	0.266 (0.087) ***	0.272 (0.089) ***	0.288 (0.090) ***	0.260 (0.088) ***
전공(이공·자연계열)	0.119 (0.061) *	0.093 (0.065)	0.103 (0.063)	0.113 (0.061) *
전공(기타 계열)	0.053 (0.078)	0.027 (0.080)	0.010 (0.080)	0.057 (0.078)
첫직장 이행기간	-0.007 (0.010)	-0.007 (0.010)	-0.009 (0.010)	-0.007 (0.010)
첫 일자리(정규직)	0.181 (0.055) ***	0.204 (0.059) ***	0.204 (0.057) ***	0.176 (0.056) ***
직업훈련(경험=1)	-0.137 (0.101)	-0.130 (0.104)	-0.130 (0.105)	-0.134 (0.102)
자격증 개수	0.011 (0.020)	0.009 (0.021)	0.005 (0.021)	0.010 (0.020)
해외연수(경험=1)	0.080 (0.076)	0.082 (0.078)	0.072 (0.079)	0.087 (0.076)
상수항	6.129 (0.605) ***	6.982 (0.586) ***	7.130 (0.594) ***	5.919 (0.000) ***
결정계수	0.237	0.200	0.182	0.241
F-value	6.678***	4.953***	4.411***	5.797***
표본수	270	270	270	270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모형 4는 출신대학을 지역 별로 분류하여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대학 이전의 인지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졸업 후 취업성과도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출신학교 더미를 지방, 수도권, 서울로 3등분하고 있어 학교의 서열화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요소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와 같이 구분된 집단이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해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형 2는 조사대상자의 수능점수를 100분위로 하여 하위권 50%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위권 30%와 상위권 20%의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임금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위 30%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능상위 20% 변수는 1%에서 유의하며 이들 집단의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수능하위 50%내 범위 졸업자에 비해 2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출신대학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대학 이전의 인지능력의 차이가 대학졸업 이후 생산성의 차이로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인지,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선별가설의 결과인지 혹은 양자가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학진학 당시의 수능점수의 차이는 적어도 졸업 이후 첫 일자리에에서의 임금격차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는 점이다.

첫 일자리의 이행기간을 나타내는 변수는 비록 음의 부호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4개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첫 일자리에 취업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은 직장이라도 취업하여야 하는 절박감 때문에 이 변수의 부호는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

끝으로 재학 중 학생들이 취득한 자격증이나 직업훈련 또는 해외연수의 경험과 첫 일자리의 임금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개의 모형에서 이들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험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고학력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자료를 토대로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첫 일자리의 임금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였다.

첫 일자리의 임금결정 요인분석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공별 임금격차를 보면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 각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법·상경계열 졸업자의 임금프리미엄은 26~29%로 가장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며, 그 다음으로 이공계열 졸업자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별 입학 평균점수를 나타내는 수능점수가 설명변수에 포함된 일부 모형(모형 1과 4)에서 이 변수는 통계적으로 1%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학 이전의 인지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졸업 후 취업성과도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출신대학을 통제한 모형 4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단지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선별기능 외에, 대학 이전의 인지능력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학 중 학생들이 취득한 자격증이나 직업훈련 또는 해외연수의 경험과 첫 일자리의 임금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개의 모형에서 이들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험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취업준비 노력(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들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lt;참고문헌&gt;

- 김기현(2003), 「하향취업 실태 및 과잉교육 노동자의 특성」, KLIPS Research Brief, No.3, 한국노동연구원.
- 김성환·최바울(2003),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성과분석」,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 김우영(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 김주섭(2002), 「재학중 일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김주섭·이상준(2000), 『학력과잉과 노동시장 불균형 실태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류장수(2003),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수도권 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이병희 외,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안주엽(2005), 「고학력화와 임금소득 불평등」, 이병희 외,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안주엽·홍서연(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2001),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 경력형성」,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연구』,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 \_\_\_\_\_(2002), 「청년층의 직업세계 정착과정과 경력형성」,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외(2005),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장수명(2002), 「청년기 교육선택의 임금효과」,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이상일(2002),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고용·실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전용석·김준영(2004),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이동 성과」, 중앙고용정보원.
- 최영섭(2003), 『청년 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분석과 중장기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2005), 『200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분석자료집』.
- 한준·장지연(2000),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노동경제 논집』, 제24권, 한국노동경제학회.
- OECD(1998), *Thematic Review of The Transition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Background Reports and Country Notes*.
- \_\_\_\_\_(1999), *Preparing Youth for the 21st Century*.
- \_\_\_\_\_(2003),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_\_\_\_\_(2004), *OECD Employment Outlook*.
- Ryan, Paul(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